

# 車업계, 개소세·코로나 19에 '내수판매' 감소세 나타나

5개 완성차업체, 지난달 내수시장 전년 동월 대비 5.6% 감소

개소세, 상반기 3.5% 인하됐지만 7월부터 3.5%로 늘어나

“위축된 소비심리 완화하기 위한 과감한 부양책 필요하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율 축소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 국내 자동차 판매가 감소세를 나타냈다.

2일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자동차에 따르면 5개 완성차업체는 지난달 내수 시장에 전년 동월 대비 5.6% 감소한 11만1847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올 상반기 1.5%로 인하됐던 개소세율이 7월부터 3.5%로 늘어나며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여름휴가와 공휴일 등으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도 판매 위축의 원인이 됐다.

코로나19에도 개소세 인하 등 부양책 효과로 3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내수판매가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과감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차를 제외한 모든 완성차업체의 내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현대차는 국내시장에 국내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2% 증가한 5만4590대의 완성차를 판매했다.

그랜저(하이브리드 모델 3216대 포함)가 1만235대 팔리며 국내 판매를 이끌었다.

기아차는 국내시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11.3% 감소한 3만8463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화성공장 일부 라인 재편 공사로 공급물량이 줄며 내수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다.

한국지엠은 내수시장에는 8% 감소한 5898대의 완성차를 판매했다.

르노삼성은 내수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5% 감소한 6104대를, 쌍용차는 15.5% 감소한 6792대를 각각 판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 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를 내고 자동차가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이 된 만큼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은 보고서에서 “외국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별도의 개별소비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도 별도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동차 취득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이중과세되고 있어 세

금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7월 내수시장에서 우울한 성적표를 받은 자동차업체들은 9월 한가위 특수를 노리고 현금 지원, 무이자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승부수를 띄웠다.

기아차, 쌍용차는 귀성비·유류비 명목으로 현금 지원에 나섰고, 르노삼성은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모든 차종별 할인 혜택 외에 추가로 최대 100만원을 할인해준다.

현대차는 이달 들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2.5% 저금리 할부와 i30 2.5%, 코나·투싼 2.5~3% 저금리 할부 등을 시행한다.

차량 구매에 관심있는 고객을 영업사원들이 관리하는 ‘굿프렌드’에 가입하면 10만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는 지난해에 이어 이달에도 진행된다.

배기량 1700cc 이하 준중형차를 보유한 소비자가 쏘나타(하이브리드 제외)를 구입하면 30만원, 투싼과 구형 쉐타페를 구입하면 20만 원을 각각 할인해준다.

기아차는 이달 K3, K7(하이브리드 포함), 니로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구매자에게 추석 유류비 30만원을 할인해준다.

또 대한체육회 또는 프로협회 소속 스포츠 인이 9월 스텔러 마이스터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깎아준다.

이달 전시장 방문자에게는 CU 동서 스타벅스 커피 라떼 컵을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씨마크 프리미엄 디럭스 1박 숙박권과 조식 2인(6명) 등을 증정한다.

지난달까지 모하비를 시승한적이 있거나, 모하비나 쏠렌토를 구입했던 이력이 있는 고객이 모하비를 사면 30만원을 깎아준다.



한국지엠은 스파크 구매자에게 최대 5년(60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트래버스, 말리부, 트랙스, 이쿼녹스 구매자도 3년(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차종에 최대 72개월 0.5~3.9%의 저금리로 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금 지원을 원하는 소비자가 콤보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말리부 250만원, 스파크 120만원, 트랙스 150만원, 이쿼녹스 250만원, 트래버스 100만원, 트레일블레이저 50만 원을 지원한다.

르노삼성은 9월 한 달 동안 르노삼성차를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할인해준다.

또 이달 중형 SUV QM6를 구매하면 200만원 상당의 옵션·용품·보증연장 구입비 지원 또는 최대 50만원의 현금 지원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출고 후 5년이 지난 노후 차량 교체 시 3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재구매 100만원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기차 SM3 Z.E를 현금 구매하면 60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쌍용차는 8월 이전 생산된 차량에 대해 차종에 따라 최대 7%를 할인하는 ‘수퍼세이프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G4 렉스턴의 경우 최대 35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G4렉스턴, 코란도, 티볼리 등 SUV 모델에 대해서는 60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구매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4일까지 예약하면 30만원, 21일까지 예약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7년 이상 노후차 보유자에게는 최대 50만원, 렉스턴 스포츠·칸을 구매하는 사업자에게 30만 원을 할인해주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서선욱기자

## 자영업자·기업 ‘빚폭탄’...산업대출 69조 폭증 사상 최대

자영업자 몰린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대출 18.8조 ↑

올해 2분기 금융권 산업대출이 석달새 69조1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정부, 가계는 물론 기업자영업자까지 모두 '빚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대출이 대폭 늘어나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은 1328조2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69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1분기 이후 역대 최대폭이다. 기업과 자영업자 가 모두 빚을 늘리면서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대출이 역대급 폭증세를 보였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14.2%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증가세를 주도한 건 서비스업 대출이다. 전분기대비 47조2000억원 늘어 역대 가장 큰 폭 늘어났다. 이는 2분기 전체 산업대출 증가액의 68%를 차지하는 규모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자영업자가 주로 몰린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대출이 18조8000억원 늘어 마산가지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의 대출 비중은 전체 서비스업 대출의 31.3%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에 빚으로 연명한 자영업자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 대출도 10조6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2분기 산업별대출금 증가 배경에 대해 “정부와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확대도 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부진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대출도 전분기대비 17조2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수요 증대, 자동차트레일러, 금속가공제품기계장비 등 일부 업종의 시설 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됐다. 건설업 대출도 건설 수주, 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2조5000억원 늘어 전분기(1조4000억원)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만큼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쓰이는 운전자금 대출액은 2분기 기준 788조6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큰 폭인 52조1000억원 늘었다.

실질자금 대출은 17조원 늘어났다. 2014년 4분기(17조1000억원) 이후 5년6개월 만에 최대치다. 업권별로는 예금은행에서 45조원 증가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24조1000억원 늘어 모두 증가폭이 전분기보다 확대됐다. 송 팀장은 “3분기에도 이러한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지, 둔화할지 여부는 정책당국의 지원 효과, 산업별 영향 등을 살펴봐야 해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김미희기자

## 칼로리 낮다고 선택?...“시판컵밥, 짜다 짜”

소비자원, 13개 컵밥 제품 시험, 평가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전자레인지로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고 가성비가 높은 컵밥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즉석컵밥, 육개장국밥류 등 13개 컵밥 제품을 대

상으로 영양성분 함량, 재료 구성, 매운맛 성분, 안전성 및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 평가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 결과 컵밥의 열량은 하루 에너지 섭취 참고량(2000kcal)의 21.7% 수준으로 한 끼 식사가 대신하기에는 낮은 반면, 나트륨은 1일 기준치

(2000mg)의 50.3%로 높은 편이어서 영양 불균형이 우려됐다.

즉석컵밥류는 제품별 열량이 368~625kcal, 나트륨 함량이 408~1337mg 수준이었다. 열량은 데일리의 '제육컵밥'이 625kcal로 가장 높았고, CJ 제일제당의 '찰판제육컵밥'이 368kcal로 가장 낮았다. 나트륨 함량은 롯데쇼핑의 '매콤즉석컵밥'이 1337mg으로 가장 높았고, 로고온커머스의 '제육불고기컵밥'이 408mg으로 가장 낮았다.

육개장국밥류는 열량이 313~392kcal, 나트륨 함량이 1043~1532mg 수준이었다.

SPC삼립의 '육개장국밥'은 열량이392kcal로 가장 높았고, 나트륨 함량도 1532mg으로 가장 높았다. 이마트의 '육개장국밥'은 열량과 나트륨 함량이 각각 313kcal, 1043mg으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컵밥으로 식사를 대체할 경우 균형있는 영양 섭취를 위해 단백질 등을 보충하고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우유나 바나나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며 “설문조사 결과 컵밥과 라면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나트륨 함량이 많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 라면업계 빅3, 상반기 이어 하반기도 '청신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등으로 3분기 실적 전망도 '맑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농심·오뚜기·삼양식품 등 라면업계 빅 3가 하락세이다.

이들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해 해외 주요 시장에서 집콕족이 늘어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하반기 실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1조3557억원, 영업이익 105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7.2%, 1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뚜기도 올 상반기 실적으로 매출액 1조2864억원, 영업이익 110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0.5%, 21.3% 증가한 수치다. 삼양식품은 매출액 3305억원, 영업이익 56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32%, 55.7% 증가한 실적이다.

라면업계 빅 3 모두 올해 상반기 실적 상승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끼니를 때우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라면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라면시장도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올 상반기 국내 라면시장은 전년 대비 7.2%가 늘어난 약 1조1300억원 규모를 보이며 반기 실적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하반기 실적도 역대급으로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재택근무를 실시하

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주말에도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이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에 강화되는 성급한 사회적 개방을 경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라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컨센서스 추정기관수 3곳 이상이 예상한 농심·오뚜기·삼양식품의 3분기 실적은 모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3분기 농심의 실적은 매출액 6409억원, 영업이익 28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8.6%, 53.6% 증가한 수치다.

오뚜기는 3분기 매출액 6235억원, 영업이익 42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4.4%, 15.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삼양식품은 3분기 매출액 1521억원, 영업이익 23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0.5%, 12.2%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치가 나왔다.

해당 통계 자료는 지난해 18일 기준으로 작성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라면 수요 급증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동취재본부

## 상반기 최대 판매 스마트폰은 '아이폰11'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기종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애플 '아이폰11'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A51'은 판매량 2위에 올랐다.

2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이폰11은 약 3700만대 팔려 최대 판매 스마트폰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스마트폰 기종은 1140만대 판매된 삼성전자 갤럭시A51였다. 올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A51은 5G를 지원하지 6.5형의 대화면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 대용량 배터리 등을 탑재한 중저가 제품이다.

정승호기자